



무·배추 포장상품화 시대

New Generation of Packaging in Rabish and Chinese Cabbage

지난 1월 초순 주요 경제신문에 “농산물 포장의무화 시행에 따라 골판지株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이례적인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농림부는 올들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포장되지 않은 무·배추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가 예상과 달리 강력해 골판지업체로서는 신규 수요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무·배추 포장화 사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면서 포장제 업종을 중심으로 유망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무·배추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포장이 되지 않은 산물형태로 유통되어 포장화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포장화율은 배추 10%, 무 40% 수준에 불과하여 원예농산물 전체 평균 87.8%에 훨씬 못 미쳤다.

무·배추의 포장되지 않은 관행적 산물유통은 도매시장에서 수량 계산이 부정확하고 속박이로 인한 거래의 불신을 초래하며, 감모나 재고(폐기) 발생을 감안하여 10~15%의 산(덤)을 인정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중도매인은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 경매 후 재다듬기(재선별, 재포장)가 일반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유통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은 소비자의 구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상당량의 쓰레기 발생으로 처리비용이 증가하며 오수와 악취를 유발시켜 시장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악화를 초래해 온 것도 큰 문제였다.

이제는 무·배추에 대해서도 포장유통을 통하여 불필요한 유통



김영만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국장

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선진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지에서부터 깨끗이 다듬어 선별·포장 출하함으로써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정량거래를 통해 얻은 부가 가치를 농가 수취 가격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포장품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능에 의해 안정적으로 이윤이 창출되도록 유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한 유통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유통환경은 무·배추에 대해서도 포장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각 유통주체들이 공감하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본다. 더욱이 생산자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규격화·포장화를 통해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금년 1월부터 배추·무 포장유통을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전면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미리 준비해 왔다. 지난 9~10월에는 포장화율이 가장 낮은 배추를 대상으로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전량 포장배추가 반입됨으로써 출하자, 중도매인의 포장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산지의 선별 및 규격포장이 익숙하지 못하여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거래된 무·배추는 102만톤으로 전체 청과류 거래량 575만톤의 17.7%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물량이다. 앞으로 포장화가 정착되면 많은 양의 포장재가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무·배추 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포장재는 그물망, 골판지상자, 플라스틱상자, PE대 등이다.

출하자는 비교적 값이 싼 그물망 위주로 포장출하하고 있고 골판지상자는 값이 비싸 아직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그물망 포장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골판지상자나 플라스틱상자 포장으로 대체되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의 규격화·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여러가지 정책수단들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무·배추 포장화사업도 이러한 정책수단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기능에 의해 포장유통이 정착되면서 파렛트 출하에 의한 물류효율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렛트 출하에 적합한 포장재 사용이 뒷받침되어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포장재 제작업체는 저렴하고 물류효율이 높은 포장재를 개발하여 출하자가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K]